

IT 방송

# 호서대, 학생 집필 '동물 보건 임상실습 지침서' 주목...학생 중심 영상 콘텐츠 제작

발행일 : 2025-01-23 13:28



김충현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와 집필에 참여한 학생들.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 동물 보건복지학과 재학생들이 동물 보건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동물병원 현장 실습을 재정립해 직접 집필한 '동물 보건사 임상실습 지침서'를 출간했다.

이번 지침서는 동물 보건 분야에서 대학생이 직접 작성한 최초의 지침서로 주목받고 있다. 학생들이 기존의 동물병원 실무 관련 도서와 간호학 실습 설명서를 참고하며,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반영한 실습 경험과 현장 지식을 담아냈다.

이 지침서의 가장 큰 차별점은 호서대학교 동물 보건복지학과와 영상학부의 크루(CREW)를 통한 협력으로 탄생한 탄탄한 동영상 콘텐츠다. 개 채혈 보정법 알약 투여 보정법 등 동물 보건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25개 주요 실습 내용을 QR 코드를 통해 유튜브와 연동시켰고,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기존 교육 방식의 경계를 허물고 실습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김충현 동물 보건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교재들이 공급자인 교수의 입장에서 집필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호서대학교 동물 보건복지학과 학생들의 실습 결과가 매우 훌륭하여 열정 있는 몇몇 학생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학생들은 '기둥'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고, 동영상 제작의 어려움은 문화 영상학부 진승현 교수와 학생들의 도움으로 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서대학교 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다. 박고운 학생은 “작년 초 김충현 교수님으로부터 임상실습 지침서 제작 제안을 받았을 때, 학생들의 힘으로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있었고, 동영상 제작과 이를 책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초대 한국 동물 병원협회 회장인 홍하일 교수님의 감수와 문화 영상학부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라고 전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안수민 기자 기사 더보기 >

- 인공지능 시대 핵심 '벡터 DB' 다루는 실습·장단점 비교 세미나에 관심 집중

"코딩 없이 회사에 필요한 GPTs 앱 개발 워크숍" 메디치교육센터 개최 (2/18)

"인공지능 잘 쓰는 마케터, 열 마케터 안 부럽다" 메디치교육센터(2/7)

당신에게 추천하는 콘텐츠

by

머스크, 美 예산 삭감 목표치 '후퇴'했다... "2조달러 목표하면 1조달러 가능"

맘카페에서 난리난 '눈밑꺼짐' 없애는 법

하나은행, 'H.I.T 시스템' 구축한다...금융안전시스템 새롭게 구축

Copyright © Electronic Times Internet. All Rights Reserved.